광주체고 안세영 시즌 3번째 월드투어 정상

아키타 마스터스 여자단식 결승서 일본 꺾고 우승
상승세 이어가며 2020 도쿄올림픽 출전 희망 키워
고성현-엄혜원도 혼복 1위 화순군청 정나은 3위

한국 배드민턴 여자단식 차세대 에이스 안세영(광주체고 2년)이 시즌 3승을 달성했다.

안세영은 18일 일본 아키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투어 슈퍼 100 대회인 2019 아키타 마스터스 여자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하루코 스즈키를 2-1(21-10 17-21 21-14)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5월 뉴질랜드 오픈(BWF 300)과 지난달 캐나다 오픈(BWF 100)에 이어 올해 3번째 우승이다.

세계랭킹 30위로 이번 대회 3번 시드를 받아 출전한 안세영은 16강에서 일본 나츠키 오이에를 2-1(14-21 21-11 21-5)로 꺾고 8강에 올랐다. 8강에서는 세계랭킹 37위 루셀리 하르타완(인도네시아)를 2-0(21-17 21-14)으로, 4강에서는 피타야폰 차이완(태국)을 2-1(15-21 21-15 21-11)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상대 하루코 스즈키는 세계랭킹 261위. 우승까지는 1시간3분이 걸렸다. 첫 세트를 가볍게 따낸 안세영은 두 번째 세트를 내줬으나 3세트를 21-14로 제압하며 올 시즌 3번째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지난 11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오픈 은메달의 아쉬움도 털어내는 우승이었다.

혼합복식에서는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고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고성현-엄혜원(이상 김천시청)이 일본 교헤이 야마시타-나루시노야를 2-0(21-10 21-17)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왕찬(김천시청)과 호흡을 맞춰 혼합복식에 나선 화순군청 정나은(19)은 준결승전에서 교헤이 야마시타-나루시노야에 0-2(18-21 14-21)로 패해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3위에 올랐다.

광주체고 안세영이 18일 일본 아키타에서 열린 2019 아키타 마스터스 여자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고 제공

현재 세계랭킹 30위인 안세영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랭킹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세영의 목표는 2020년 5월1일까지 2020도쿄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는 세계랭킹 16위권 안에 진입하는 것이다.

김명자 광주체고 감독은 "안세영의 랭킹이 아직까지는 높은 레벨의 대회에 출전하기에는 낮았다. 하지만 이번 대회 우승을 하면서 랭킹이 올라가면 다음 대회부터는 더 높은 레벨의 대회를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 국제대회 출전이 예정돼 있다. 국내 대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만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류현진 5⅔이닝 4실점
50일만에 패전 멍에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동점 상황에서 연속 타자 홈런을 허용하며 50일 만에 패전 투수의 멍에를 썼다.

류현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선트러스트파크에서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해 5⅔이닝 동안 홈런 2개를 포함해 6안타를 내주고 4실점 했다. 볼넷은 1개만 내줬고, 삼진은 5개를 잡았다.

다저스는 3-4로 패했고, 류현진은 패전 투수가 됐다.

류현진이 4실점 이상을 한 건 6월 29일 콜로라도전(4이닝 9피안타 7실점) 이후 50일 만이자 올 시즌 두 번째다.

류현진이 패전 투수가 된 것도 6월 29일 콜로라도전 이후 7경기 만이다. 시즌 13승에 도전했던 류현진은 홈런으로 결승점을 헌납해 시즌 3패(12승)째를 당했다.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1.45에서 1.64로 나빠졌다. 하지만 류현진은 여전히 메이저리그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중 유일하게 1점대 평균자책점을 유지하고 있다.

다저스는 타선도 류현진을 돕지 못했다.

다저스는 0-2로 뒤진 4회 맷 비티의 솔로포로 추격했고, 5회 2사 1, 2루에서 터진 비티의 중전 적시타로 2-2 동점을 만들었다.

류현진이 마운드를 내려간 뒤인 7회 초에는 맥스 먼시의 솔로포로 다시 추격했다.

그러나 끝내 승부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 후반 42분 프리킥 동점골을 터트린 광주FC 이으뜸(8번)이 동료들과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이으뜸 환상 프리킥 광주 자존심 지켰다

부산에 선제골 내주고 후반 42분 동점골 1-1 무승부
4G 연속 무패 광주 2위 부산과 승점 5점차 선두 유지

이 정도면 프리킥 장인이다. 5월4일 전남 드래곤즈전, 6월2일 FC 안양전, 6월16일 부천FC전에서 프리킥으로 만 3골을 터트렸던 광주FC 이으뜸이 시즌 4호골도 왼발 프리킥으로 완성했다.

이으뜸은 지난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4라운드에서 0-1로 뒤져있던 후반 42분 동점 골을 터트렸다. 자신의 시즌 4호 득점이자, 1-1 무승부를 만든 값진 골이었다. 이으뜸은 동점골에 대해 "내가 넣은 것이 아니고 광주FC가 넣은 것"이라며 '원팀'을 강조했다.

이날 광주와 부산의 경기는 '빅게임'이었다. 1위 광주와 2위 부산의 승점차는 '5'에 불과했다. 광주로서는 이기면 승점을 '8'까지 벌릴 수 있지만 진다면 '2'로 좁혀지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다.

광주는 승자가 되지 못했지만, 지지 않았다. 광주는 3경기 연속 무승부를 포함해 4경기 연속 무패(1승 3무) 행진을 벌였고 승점 51점(14승9무1패)이 되면서 부산(승점 46·13승7무4패)과의 승점차 '5'를 유지했다.

광주는 펠리페를 최전방 공격수로 세웠다. 김정환과 윌리안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좌우 날개는 두현석과 이희균을 배치하며 득점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부산의 촘촘한 수비를 뚫기는 쉽지 않았고 공방 끝에 전반은 득점 없이 마쳤다.

부산은 후반들어 거세게 밀어붙였다. 이정협, 수신야르의 슈팅이 이어졌지만 골키퍼 윤평국의 선방이 이어지면서 0-0 균형은 깨지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후반 13분 호물로의 슈팅이 광주의 골망을 흔들며 부산이 앞서갔다.

광주는 여름, 김주공, 홍준호를 투입하며 공세를 벌였지만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후반 40분이 넘어서면서 패색이 짙어지는 듯했다. 이때 이으뜸이 해결사로 나섰다.

공세끝에 후반 42분 얻은 프리킥 기회. 키커로 나선 이으뜸은 왼발로 강하게 감아 찼고, 공은 포물선을 그린 뒤 그대로 부산의 오른쪽 골문을 갈랐다. 이으뜸은 이날 경기 MOM(Man Of the Match)으로 선정됐다.

박진섭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전반에는 준비한대로 플레이가 잘 이뤄졌는데 후반에는 체력적 문제로 밀린 것 같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잡았는데 선수들이 열심히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12경기중 홈경기 승리가 중요하다. 홈에서의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프로축구 '흥행 대박'
K1·K2 작년 관중 추월

프로축구가 '흥행 대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7일 K리그1(1부리그)과 K리그2(2부리그) 모두 지난해 관중 규모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K리그1은 이번 주말 26라운드 4경기가 진행된 가운데 누적 관중 125만575명을 기록해 작년 전체 관중 수(124만1,320명)를 이미 넘어섰다.

올 시즌 26라운드까지 154경기 만에 작년 전체 38라운드(228경기)의 관중 규모를 추월한 것이다.

올 시즌 경기당 평균 관중 수도 8,12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평균 관중인 5,216명과 비교해 55.7%의 증가세를 보였다.

K리그2도 24라운드 2경기를 치른 가운데 올해 누적 관중이 31만2,488명으로 작년 전체 관중 수(31만627명)를 넘어섰다.

117경기 만에 작년 전체 182경기의 관중 규모를 돌파한 것이다.

이처럼 올해 프로축구가 흥행몰이하는 건 K리그1의 선두 싸움과 K리그2의 승격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축구를 보는 재미가 증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박민지 보그너 MBN 오픈 우승
김자영·이다연·장하나 공동 준우승

박민지(21)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3승 고지에 올랐다.

박민지는 18일 경기도 양평 더스타휴 골프&리조트에서 열린 KLPGA투어 보그너 MBN 여자오픈 최종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4언더파 199타로 우승했다.

김자영(28), 장하나(27), 이다연(22) 등을 1타차로 따돌린 박민지는 작년 11월 ADT캡스 챔피언십 제패 이후 9개월 만에 생애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2017년 데뷔하던 해 삼천리 투게더 오픈에서 우승한 박민지는 3시즌 연속 우승을 신고했다.

우승상금 1억2,000만원을 받은 박민지는 시즌 상금이 3억5,642만원으로 늘리며 3시즌 연속 3억원을 돌파했다.

앞서 2차례 우승은 모두 연장전 끝에 따냈던 박민지는 이날도 18번 홀 마지막 퍼트를 마치고서야 우승을 확정 짓는 힘겨운 경기를 치러야 했다.

2타차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박민지는 8번 홀(파4)까지 버디 1개와 보기 2개로 1타를 잃은 바람에 김자영에게 선두를 내줬다. 박민지는 11번홀(파4) 버디에 이어 13번홀(파5) 버디로 공동선두에 복귀했고 16번홀(파4)에서 2.5m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박민지는 18번홀(파5)에서 파를 적어내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자영은 1타차를 따라 잡자 못해 준우승(13언더파 200타)에 만족해야 했다. 이다연은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쓸어담아 한때 선두까지 오른 끝에 1타차 공동 2위에 올랐다. 장하나도 이번 시즌 세번째 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황희찬 첫 선발출전 1골 2도움
잘츠부르크 6-0 대승…4연승

오스트리아 리그로 돌아간 축구 대표팀 공격수 황희찬(23·잘츠부르크)이 새 시즌 마수걸이 골과 함께 도움까지 두 개나 기록하며 팀의 개막 4연승을 이끌었다.

황희찬은 18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장트 폴텐의 NV 아레나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정규리그 2019-2020시즌 4라운드 SKN 장트 폴텐과의 원정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잘츠부르크의 6-0 대승에 큰 힘을 보탰다.

지난 시즌 독일 2부리그 함부르크에 임대됐다가 올 시즌을 앞두고 원소속팀 잘츠부르크로 복귀한 황희찬이 이날도 무서운 기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21일 컵대회 1라운드에서 시즌 첫 도움을 작성한 황희찬은 지난달 27일 라피드 빈과의 정규리그 1라운드에서 후반전 교체 투입돼 다시 도움을 올렸다.

그는 11일 볼프스베르거와 3라운드 홈 경기에서도 후반 17분 교체 투입돼 도움 2개를 기록하며 팀의 5-2 승리에 앞장섰다. 그러고는 1주일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 선 이날 팀이 넣은 6골의 절반에 관여하면서 2경기 연속 멀티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황희찬은 컵 대회를 포함한 올 시즌 5경기에서 벌써 1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화정남초 학산배씨름 단체전 준우승

박준영 용장급 금·이시우 소장급 동

화정남초등학교 박준영(6년)이 제16회 학산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우승했다.

박준영은 지난 16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초등부 용장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준영은 소년체전 은메달과 전국장사씨름대회 2관왕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용장급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소장급에서는 이시우(6년)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단체전에서는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결승에서 용천초에 금메달을 내주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화정남초 정유승 감독은 "올해 씨름부가 창단 이래 최대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지도자, 학생선수, 학부모가 하나돼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화정남초등학교가 씨름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정남초등학교가 지난 16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6회 학산배전국장사씨름대회 초등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충북씨름협회와 보은군씨름협회가 주관한 제16회 학산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한국 씨름계의 거목' 학산 김성률 장사의 업적과 도전을 기리기 위한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최진화 기자